

전 남

장성 대곡마을, 산림 휴양형 마을로

장성 축령산 기슭에 자리한 서삼면 대곡마을이 편백숲을 활용한 '산림 휴양형' 산촌 생태마을로 개발된다.

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박양중 부군수를 비롯해 산촌생태마을 추진위원장, 마을 주민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삼면 대곡산촌생태마을을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촌생태마을의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생태마을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마련됐다. 대곡마을은 지난해 산림청으로부터 산촌생태마을로 선정됐다.

이번 중간보고 기본계획에 따르면 마을 자연환경 특징과 주민 생활활동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백 숲을 활용하는 '산림 휴양형'으로 선정됐다.

축령산 편백숲 활용, 총사업비 14억원 투입

항토방 등 산림문화관... 아토피 치료 코스도

군은 총사업비 14억원을 들여 '에코 힐링 빌리지(명의촌·Eco-healing Village)'라는 명칭으로 편백나무·삼나무 체합관, 전통 항토방 등으로 이뤄진 산림문화관을 건설하고 아토피 치료코스 등 다양한 등산코스도 개발한다.

또한 추석의 산촌을 만들기 위해 500m에 이르는 돌담을 정비하고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등의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북문자, 오디, 고구마 등의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하고 산야초, 딸기화분 등의 재배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 하순에 전남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12월 중 실시계획 및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축령산 일대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살기 좋은 산촌마을을 조성하려는 장성군의 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군은 산촌생태마을과 함께 지난 2월 산림청이 주관하는 치유의 숲 사업에 선정되어 산야초, 딸기화분 등의 재배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로드, 전망대 등을 갖춘 명품 숲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산촌생태마을은 주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마을 자원을 활용한 녹색관광과 도농교류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축령산 치유의 숲과 연계해 산촌체험, 산악자전거 스포츠 체험 등을 실시해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나눈 산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 조성을 통해 산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산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나주 '금사정 동백나무'·'호랑가시나무'

천연기념물 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11일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사진 위)'와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등 2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나주 현곡면 '금사정 동백나무'는 조선 중종 때 조광조를 구명(救命)하던 성군관 유생 11명이 낙향해 후일을 기약하면서 금강 11인을 조직하고 금사정(錦紗亭)을 짓고 번치 않는 절개를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심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령이 500년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는 높이 6m, 뿌리 부근 둘레 2.4m로, 현재까지 알려진 동백나무 중 가장 굵고 크며 모양새도 아름답다.

나주 공산면 상방리 호랑가시나무는 수령 250년으로 추정되는 나무다. 높이는 19.5m, 둘레는 2.3m로 호랑가시나무 가운데 보기 드물게 큰 편이다. 임진왜란 때 충무공과 함께 싸운 공포로 선무원종 일등공신이 된 오득린 장군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심었다고 전해진다.



호랑가시나무는 호랑이가 등을 긁을 때 이 나무의 잎 가시에 문질렀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남해안에서 주로 자란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하니움센터, 체육·문화공간 '각광'

개관 2개월 17개 행사 개최... 15만명 다녀가

화순군의 랜드마크인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가 체육·문화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개관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현재까지 배드민턴 국가대표 전지훈련과 전남도지사배 공무원 탁구대회, 삼성화재배 전국대학 배구대회 등 17개 체육·문화행사가 열려 15만 명이 함께했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 센터에서는 웰린지 국제배드민턴대회와 생활체육가족 한마음대회 등 20여개 대회가 열려 1만8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이음대 올림파제대 기념 전국 배드민턴대회와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등 16개 대회와 행사가 예약돼 있을 정도로 인기다.

조화(Harmony)와 중심(Centrum)의 합성어인 '하니움'(Hanium)은 5만1천548㎡ 부지에 연건축

면적 1만6천905㎡로,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로 국내 최초로 한 건물 안에 실내체육관과 문화회관 기능을 갖춘다. 특히 2천730여 규모를 갖춘 체육관은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거의 모든 실내경기를 치를 수 있다.

지하층은 725석 규모의 대강당(적벽실)과 168석 규모의 소공연장(만연실), 전시실(규곡 갤러리), 웨이트 트레이닝실(테라피 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전원준 화순군수는 "하니움이 전남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각광받고 있다"며 "다양한 문화·스포츠 행사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정운수기자 unsu@

전남 축산물 안전성 검사

3년새 10배 이상 증가

전남지역의 축산물의 친환경 인증을 위한 안전성 검사가 3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도내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1천192건으로 2006년 118건, 2007년 377건, 2008년 930건 등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무려 1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축산농가들의 친환경 인증검사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혈주부단 발대식 "자전거 함께 타요" 광산구 5기 열혈주부단 130여명이 11일 첨단쌈김공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광산구 열혈주부단은 자전거가 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를 비롯해 기초질서 모범도시 구현을 위한 계도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진 주부시민운동으로 정착하고 있다.

"재고 쌀 팔아주기 운동 고맙습니다"

농민들, 완도군수에 감사패

김종식 완도군수가 농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추곡 수매량 감소에 따른 농민들의 비추곡 재고 쌀 팔아주기 운동은 올해 가을에 재고 쌀 팔아주기 운동이 벌이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완도군 농업인 5개연합회는 11일 열린 '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 군수가 지난해 소비부진으로 팔리지 않은 재고 쌀 팔아주기 운동을 펼쳐 올해산 벼를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사진) 최권일 완도군 농업경영인연합회



장은 "재고 쌀이 많아 올해는 벼를 수매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김종식 군수와 650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올해산 벼 4만1천900여 가마를 수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완도=정문조기자 eunjung@

목포대 조성의 교수

공학교육혁신 장관상



목포대학교 공과대학 조성의(60)교수가 최근 '2009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 공학교육혁신 부문에서 교육

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조 교수는 공과대학장과 공학교육혁신 센터장을 맡아 공학교육을 지역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과 창의적 설계능력배양 등을 위한 실무중심의 교육체제로 바꿨다.

/목포=이상선기자 sstee@

태안 앞바다 발굴 목간·청자 공개

문화재청,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 특별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최근 발굴된 목간과 고려청자, 영광 범성창 고문서(사진) 등 유물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성낙준)는 13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목포 연구소 기획전시실에서 고려시대 조운(漕運)을 주제로 한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각 지방에서 거둔 조세를 중앙까지 운송했던 고려시대 조운(漕運)의 조세로 거둔 현물을 보관했던 조창의 운영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리다. 조운선으로 추정되는 태안 '마



도 1호선'에서 출토된 800년 전 죽간(竹簡) 1점과 목간(木簡) 2점이 대표적인 전시물이다. 이 죽간과 목간에는 선박의 선적과 출항 일자, 발신지(자), 수신자, 그리고 화물의 종류와 수량 등이 기록돼 있다. 특히 조선 후기 영암 범성창의 고문서에는 조운선에 탄 관리와 선원의 개인 신상과 세목이 적혀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tee@

목포 농산물 도매시장

진입도 공사 마무리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져 농산물 도매시장을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목포시는 지난 11일 정종득 목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도매시장 고가도로 입구에서 진입도로 준공식을 가졌다.

10억원이 투입돼 개설된 진입도로는 총 연장 287m, 폭 15m이며, 국도 2호선 청호육교 인근 삼거리로 '사통팔달'의 신축체계로 개량해 국도 1, 2호선에서 마림입이 진출입할 수 있게 됐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Table with multiple columns for real estate listings, including location, price, and agent information. The table is organized into several sections for different areas like Mokpo, Gwangju, and Jeonnam.